

## 인권은 무시하고 기업의 이익에 치우친 ISDS 개선 논의

2018년 9월 11일

아시아 지역의 노동조합, 여성 단체, 환경, 시민 단체들은 이번 주에 열린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의 지역별 회의에 참여했다.

우리는 “정부를 국내 법원이 아닌 국적불명의 별도의 중재지로 끌고갈 수 있는 권한을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국제중재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미있는 논의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기대했던 논의는 부족했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로 불리는 현행 중재절차는 투자자만 분쟁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일방통행로이다. 국가가 국민과 환경을 위한 국가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수조원에 달하는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되었다. 이는 단순히 절차적 사안을 다루는 정도가 아니라 ISDS 자체를 철폐하는 제도적 변화이어야 한다”고 필리핀의 노동계를 대표한 토니 살바도르가 말했다.

수억 달러, 심지어 수조달러에 달하는 배상 결정은 개도국 국민들이 낸 세금을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에 쓰지 못하게 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정책을 펴지 못하도록 한다. 시멕스 (Cemex) 사건만 보더라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투자자와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3억 3천 7백만 달러를 투자자에게 지불했는데 이는 3만 8천명의 교사가 받는 연봉에 맞먹는 금액이다.

“회의에서 전문가가 보여준 통계는 충격적이다. 이 편향적인 제도에서 정부가 이겨서 투자자에게 정부가 지출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정이 난 경우에도, 37%의 사건에서 정부는 비용을 회수하지 못했다. 투자자는 자산은 없는 유령회사인 경우가 많고, 투자자는 제 3 후원자(투기꾼)의 지원을 받는데 이들은 정부가 막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정이 난 경우에는 이익을 취하지만 진 경우에는 비용을 물어야한다는 판정을 이행할 당사자가 아닌” 점을 국제공공서비스노조 (PSI) 인도의 잠무 아난드가 지적했다.

회의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은 숨겨진 안건은 유럽연합이 제안한 국제투자법원인데 이는 투자자에게 유리한 국제투자협정의 규정들은 그대로 둔채 판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국제중재 판정부에 국가 정책과 법률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의 제인 켈시 교수는 “현행 국제 투자 규범은 이미 위기에 처했다. 투자자에게 편향된 현행 체계가 국익을 위한 국가의 규제 권한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여러 개도국들이 투자 조약을 종료했고, 세계은행이 주도하는 투자 분쟁 해결 제도에서 탈퇴했으며,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제 투자 규범 체제에 의문을 품은 지역의 나라들은 이번 회의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들의 경험은 들을 수 없으며 이들이 제도의 근본적인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취한 방안도 들을 수 없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태국의 여성단체인 APWLD의 우미선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논의가 회의 내내 많았다. 하지만, 국제 무역/상거래법에는 일관성이 어디에 근거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UNCITRAL 이 유엔총회 산하기관인 점과 기관 자체의 임무를 고려하면 유엔헌장의 기본 원칙인 평화, 정의 및 인권에 입각한 일관성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주의와 토착민

의 권리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의 ISDS 에 대한 비판과 국가의 환경에 관한 의무에 관해서는 언급도 없다"며 비판했다.

이번 회의는 아시아 지역을 위한 것이지만, 참여자 대부분은 유럽과 국제 기구 그리고 중재산업이고, 아시아 지역 참가자는 절반도 안된다. "UNCITRAL 의 가짜 "개혁" 의제를 누가 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바로 부자 나라들과, 외국계 기업 그리고 죽어가는 산업을 살려야 하는 중재 산업계"라며 PARC 일본의 쇼코 우치다가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시아 지역의 정부들이 자국 국민들의 이해를 대변하기를 요구한다. 그리고 ISDS 의 근본적인 결함을 해소하거나, 자기잇속만 챙기는 투자 분쟁 해결 제도를 강화하고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개혁" 의제를 포기해지고 UNCITRAL 에 주장해야 한다며, 국제통상연구소의 남희섭 부소장이 결론을 내렸다.

첨부:

1. 2017 년 11 월 지구의 벗(FoE) 유럽에서 만든 자료 (EU 가 제안한 국제투자법원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10 가지 이유) "[Ten reasons why the EU's proposal for a Multilateral Investment Court doesn't fix a fundamentally flawed system](#)"
2. Transnational Institute 의 2012 년 11 월 연구 보고서 ("[Profiting from injustice: How law firms, arbitrators and financiers are fuelling an investment arbitration boom](#)")

보도자료와 관련된 추가 문의는 남희섭 (+82 10 3925 2797, hurips@gmail.com)

국제통상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보건의료단체연합  
정보공유연대  
지식연구소 공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Pacific Asia Resource Center  
Asia Pacific Forum on Women, Law and Development  
Center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Asia Pacific  
SENTRO Labor Union  
Trade Justice Filipinas  
Third World Network  
Indonesia for Public Justice  
Philippine Association of Human Rights Advocates (PAHRA)